

## 근세의 와카사: 도로와 항구를 활용한 지역발전

### 개요

일본 근세(1568년~1867년)에 와카사 지역을 다스린 다이묘들은 그들의 관할 아래에 있는 토지를 개발하고 부와 권력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도로나 항구를 이용했습니다. 그들은 무역과 세금을 규제하고 새로운 법률을 도입했으며, 구마가와주쿠라는 역참마을과 오바마의 항구도시 등과 같은 지역을 무역 중심지로 번성시키기 위한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 상세 정보

#### 와카사국(와카사노쿠니)의 통치

1587년에 아사노 나가마사(淺野長政, 1546년~1611년)는 와카사국의 통치를 임명받았습니다. 세금 징수를 위해 토지조사를 실시한 후, 1589년 구마가와주쿠의 다양한 세금을 면제하는 칙령을 내렸습니다. 이 지역은 오래전부터 무역과 왕래의 교차로였는데, 새로운 정책은 상인들에게 유리한 것이었기 때문에 구마가와주쿠를 많은 운송회사, 하역소, 상점, 숙박시설이 있는 역참마을로 발전시키는 것을 도왔습니다. 그 결과, 구마가와주쿠와 비와코 호수의 항구인 이마즈항을 잇는 주요 경로 구리한카이도 등 주변 도로의 교통량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1595년, 와카사국의 새로운 통치자가 된 기노시타 가쓰토시(木下勝俊, 1569년~1649년)는 특히 뇌물수수 등 부적절한 행위에 대한 엄격한 법률을 포함한 서민과 관리에 대한 일련의 규제를 제정했습니다.

#### 권력자와의 관계

오바마의 항구도시에서 활동하던 많은 상인들은 16세기 말 일본의 사실상 지도자였던 도요토미 히데요시(豊臣秀吉, 1537년~1598년)를 지지했습니다. 그들 중에는 정부를 대신하여 특정 상품을 재판매해 이익을 얻는 것을 허가받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상품 중 눈에 띄는 것으로는 필리핀에서 온 루손 도자기와 히데요시가 연공으로 징수한 쌀 등이 있었습니다. 또, 도요토미 가문 사람과 오바마 상인과의 관계는 오바마에 있어 특정 가문의 사회적 지위나 경제적 지위 향상에도 기여했습니다.

#### 오바마 번의 발전

17세기 초 도쿠가와 막부의 창시자인 도쿠가와 이에야스(徳川家康, 1543년~1616년)는 다이묘라는 영주가 통치하는 번제도를 확립했습니다. 이에야스는 새로 설립된 오바마 번의 초대 번주로 교고쿠 다카쓰구(京極高次, 1563년~1609년)를 임명했습니다. 교고쿠는 소규모의 노치세 산성을 대체할 오바마 성을 건설하여 방어를 강화했으며, 새로운 성 주위에 무가 저택 지구를

만들었습니다. 1634년부터는 사카이 가문이 번을 통치했는데, 오바마 성 건설이 완료되어 오바마가 더욱 번영한 항구도시로 성장하는 것을 도왔습니다. 사카이 가문은 해상무역을 감독하고 상인의 사업을 지원했으며, 사원과 신사에 자금을 제공하고 와카사 칠기 등 지역 공예품의 발전을 촉진시켰습니다.

## 전시품

전시되어 있는 자료는 일본 역사 중 근세 와카사 지역의 발전과 관련된 것입니다. 에도 시대(1603년~1867년)의 에마키(그림 두루마리) 복제품에는 구마가와주쿠의 조감도가 그려져 있으며 현재의 마을 배치와 매우 유사합니다. 여행자와 물자의 움직임을 감시하던 번소는 역참마을 입구 울타리 근처에 있었는데, 그림의 중심에서 볼 수 있습니다. 아사노 나가마사가 1589년에 토지조사를 통해 발행한 포고의 복제는 구마가와주쿠에 대해 특정 세금에서 면제했습니다. 족자는 적절한 행동규칙을 적은 것으로 1595년 기노시타 가쓰토시가 정한 법령의 복제입니다.